



다시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: 2024년 2월 29일(목)

국가안보실장, NATO 동맹작전사령관 접견(2.29)

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(2/29, 목) 오후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카볼리(Christopher Cavoli) 북대서양조약기구(NATO) 동맹작전사령관*을 접견하고, 한-NATO 협력, 우크라이나 사태, 러-북 협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
* NATO 동맹작전사령관(SACEUR, Supreme Allied Commander of Europe)은 북대서양이사회 및 군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NATO의 군사작전계획을 수립, 지휘하며, 필요시 NATO 동맹국들에게 전력을 요청할 수 있음

장 실장은 작년 7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이 자유, 인권,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, 앞으로 한-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*(ITPP)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였으며, 카볼리 사령관은 ITPP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사이버안보, 정보 공유 등을 비롯한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습니다.

* (ITPP)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me : 한-NATO 간 협력의 틀을 규정하는 문서로, △대화와 협의 △대테러 △여성평화안보 △군축·비확산 △역량 개발·상호운용성 △과학기술 △상호운용성 관련 실질 협력 △공공외교 △신흥기술

△사이버 방위 △기후변화와 안보 등 11대 협력 분야 포함
⇒ 작년 7월 우리 정상외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 체결

우크라이나 사태 관련,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쟁 현황 및 상황 평가를 교환하고,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-NATO 간 정보교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아울러,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전개 방향과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.

장 실장은 한국 등 인태 파트너 국가들과 NATO 간 협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성사된 이번 방한을 뜻깊게 평가했으며 카불리 사령관은 금번 방한을 통해 한반도 상황 및 한-NATO 간 협력 방향에 대한 이해를 일층 제고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. <끝>